



KIA 타이거즈 전태현이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3차전에서 선발 출전, 4와 3분의 1이닝 동안 6피안타 1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사이드암 전태현 선발 합격투

### 시즌 첫 만원 관중 앞에서 변화 무쌍 구질 선택 4와3분의 1이닝 6K 1실점 호투... KIA 2대3 패



KIA 타이거즈의 사이드암 전태현이 2010시즌 '깜짝스타'를 꿈꾸고 있다. 3년차 투수 전태현이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3차전에 출격해 4와 3분의 1이닝 동안 6피안타 무사사구 6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선보였다. 로드리게스의 퇴출과 이대진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흔들리던 KIA 마운드는 전태현의 상승세로 안정적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달 28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깜짝선발'로 등장했던 전태현은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1회초 팀 타자들이 최희섭·김상현의 CK포를 포함해 7타자 연속 안타로 5점을 만들어 주는 등 든든한 타선의 지원이 있었지만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3회초 첫 타자 오재원에게 우전안타를 내준 전태현은 2루타와 볼넷 두 개씩을 허용하

는 등 두산 타자들에 못대며 2와 3분의 1이닝동안 6실점하며 고개를 숙였다. 팀은 전태현의 갑작스런 붕괴속에 9-10 역전패를 당했다. 잠실 만원 구장 앞에서 첫 선발 등판을 했던 전태현은 4일 다시 한 번 만원 관중 앞에 섰다. 이날 휴일을 맞아 무등경기장에는 1만 3천400명 관중이 들어서며 시즌 첫 홈 관중 만원 사례를 이뤘다. 두산전 이후 질처부심 두 번째 등판을 준비했던 전태현은 군제대 후 처음으로 출격할 롯데 이명우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였다. 1회는 전태현의 승리였다. 첫 타자 김주찬을 삼진으로 요리한 전태현은 손아섭을 1루수 앞 땅볼로 막으며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은 뒤 홍성흔마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회를 마감했다. 1회말 1사에서 김원섭이 이명우를 상대로 먼저 안타를 뽑아냈다. 최희섭의 좌중간 안타로 2사 1·3루. 김상현의 볼넷으로 만루 위기가 되었는데 이명우가 채종범을 1루수 파

울 플라이 아웃으로 잡아내며 실점없이 1회 위기를 넘겼다. 점수는 전태현이 먼저 내렸다. 2회 이대호와 가르시아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1·3루, 박종윤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1실점 했다. 전태현은 선취점을 내줬지만 올 시즌 야심작으로 준비해 슬라이더와 변화 무쌍한

크브 한층 안정된 제구로 이후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키며 선발 합격점을 받았다. 2008년 1차지명으로 입단한 뒤 부상으로 시름했던 무명의 전태현은 두 번째 도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며 만원관중 앞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선발로서의 성공과 함께 신인왕에 도전하는 전태현의 2010년 꿈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한편 KIA는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시즌 3차전에서 연장 12회 접전 끝에 2-3으로 패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KIA 치어리더 응원 자제... '천안함' 침몰 애도

KIA 타이거즈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주말 2연전 치어리더 없이 경기를 진행했다. KIA는 구조작업을 하다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이 엄수된 지난 3일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기로 하고 치어리더를 응원단상에 올리지 않았다. 4일에도 치어리더 없이 경기를 펼쳐며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4일 휴일을 맞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1만 3천4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시즌 첫 홈경기 만원 사례를 기록했다. KIA는 1위 행진을 하던 지난해 군산 5경기를 포함해 팀 역대 최다인 21번의 매진을 기록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 앤서니 김, 통산 3승 보인다

PGA 셀류스턴오픈 3R

### 10언더파 공동 선두

재미교포 앤서니 김(25·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를 앞두고 우승 기회를 잡았다. 앤서니 김은 4일(한국시각) 미국 텍사스주 험볼트의 레드스톤 골프장 토너먼트 코스(파72·7457야드)에서 열린 셀류스턴오픈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적어냈다.

사흘 동안 10언더파 206타를 친 앤서니 김은 브라이언 몰더(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오르며 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전날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였던 앤서니 김은 페어웨이 14개 중 11개를 놓치는 극심한 티샷 난조를 보였지만 절묘한 어프로치샷과 퍼트 감각을 발휘해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338야드의 짧은 파4홀인 12번홀 상황은 앤서니 김의 샷 감각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앤서니 김은 티샷을 끌어당겨 쳐 그린 왼쪽으로 크게 벗어난 곳으로 보냈다. 발의 자

세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곳에서 웨지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이며 버디를 잡아냈다. 17번홀(파4)에서도 티샷을 러프포 날린 앤서니 김은 두 번째 샷을 홀 1m 이내에 붙여 다시 1타를 줄이는 등 샷의 기복이 심했다. 앤서니 김은 "올 시즌 초반 좋지 않았지만 이제 전환점이 온 것 같다"며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번 대회 내내 상위권으로 치고 나오지 못했던 양용은(38)은 3라운드에서도 버디 6개를 잡아냈지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를 저어내는 바람에 2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37위(1언더파 215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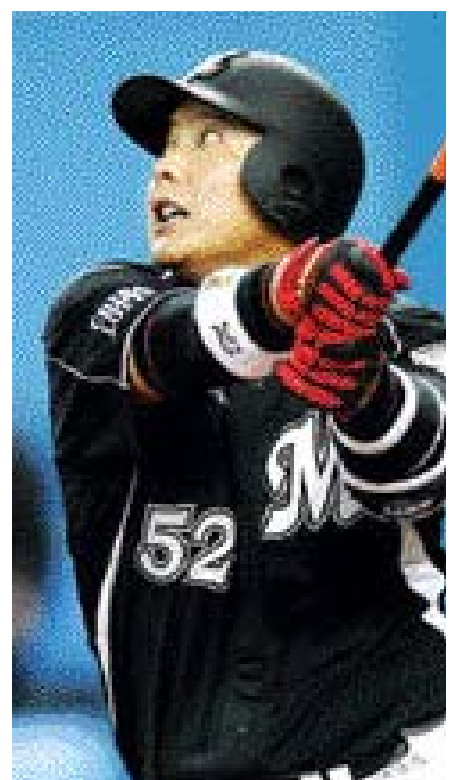


## 김태군 3경기 연속 멀티히트

지바롯데 연승행진 이끌어

첫 선발출장 이승엽 무안타

김태군(28·지바 롯데 마린스)이 사흘 연속 안타 2개 이상을 때려내며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반면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장한 이승엽(34·요미우리 자이언츠)은 무안타로 침묵, 어렵게 잡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김태군은 4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와의 방문경기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출장, 5타수 2안타를 때렸다. 전날 시즌 2호 홈런 포함 4안타를 터뜨린 김태군은 오릭스와 3연전에서 모두 안타 2개 이상 기록하며 타율을 0.311(45타수14안타)로 올렸다. 또 1일 라쿠텐과 경기부터 4경기 연속 안타도 이어갔다. 한편 이승엽은 히로시마 마쓰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경기에서 1루수 겸 5번 타자로 첫 선발 출전했으나 삼진 2개 포함,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요미우리 10-3으로 이겼다. 소프트뱅크의 이범



호(29)는 출장 기회를 잡지 못했고 팀은 3-2로 이겼다. /연합뉴스

## 김송희 나비스코 3R 주춤

선두에 3타차 공동 4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향해 가던 김송희(22·하이트)의 발걸음이 다소 무거워졌다. 김송희는 4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힐스골프장(파72·6702야드)에서 열린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버디 3개를 보기에 3개로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전날 1타차 단독 선두였던 김송희는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적어내며 공동4위로 내려앉았다. 김송희가 주춤 사이 37세의 베테랑 카렌 스테플스(잉글랜드)가 하루동안 4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중간합계 10언더파 206타)로 뛰어 올랐다. 2004년 나비스코 챔피언십 우승자 박지은

(31)은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며 중간합계 3언더파 213타로 공동 9위까지 뛰어 올랐다. 1,2라운드에서 언더파 스코어를 내지 못했던 신지애(22·미래에셋)도 3타를 줄이며 공동 9위(3언더파 213타)에 합류했다. 재미교포 워싱턴(21·나이키골프)은 278야드의 드라이버샷을 날리면서 여러차례 버디 기회를 만들었지만 퍼트 난조 속에 1타를 줄이는데 그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공동 9위에 머물렀다. 지난주 KIA클래식 우승자 서희경(24·하이트)은 4타를 잃고 공동 51위(5오버파 221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 김연경 25 득점쇼... 팀 챔피언전 견인

일본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득점왕 김연경(22·JT마블러스)이 준결승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리면서 팀을 챔피언결정전으로 이끌었다. 김연경은 4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09-2010 일본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준결승 리그 히사미쓰 스프링스와 마지막 경기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25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했다. JT는 김연경의 활약을 앞세워 히사미쓰를 3-1(21-25 25-20 25-19 25-20)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김연경은 26점과 35점을 올린 앞선 두 경기보다 득점은 적었지만, 위치를 가리지 않

고 스파이크를 꽂아넣고 블로킹 능력까지 과시하는 등 전방위 활약을 펼치며 해설사 역할을 해냈다. 백어택 7번을 포함해 55차례 공격에서 23점을 올려 공격성공률 41.8%를 기록했고, 블로킹으로 2득점을 추가했다. 김연경은 수비에서도 6차례 서비스를 받아 4번을 세터에게 정확히 공을 전달해 66.7%의 안정된 서브리시브 성공률을 기록했다. JT는 10일 도쿄체육관에서 단판 승부로 챔피언결정전을 벌인다. 상대는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히사미쓰와 도레이 에로우스 중에서 결정된다. /연합뉴스

## 남자 프로배구 10일부터 챔피언전 이번에도 삼성 VS 현대

현대캐피탈이 대한항공을 꺾고 6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올랐다. 현대캐피탈은 3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헤르만데스(24점)와 센터 이선규(12점), 하경민(9점)의 활약을 앞세워 대한항공을 3-0(25-21 25-21 25-23)으로 완파했다. 플레이오프에서 3전 전승을 거둔 현대캐피탈은 10일부터 시작하는 챔피언결정전(7전4선승제)에서 속속 삼성화재와 맞붙는다.

현대캐피탈은 2005-2006, 2006-2007 시즌 2번 우승했고 삼성화재는 2005시즌과 2007-2008, 2008-2009 시즌 3번 정상을 차지했다. 현대캐피탈은 2005년 프로배구 출범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6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면서 명문 구단의 면모를 보였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3전 전패를 당하며 2006-2007 시즌 이후 4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현대캐피탈은 외국인 공격수와 센터 등 모든 면에서 대한항공을 압도했다. /연합뉴스

## 광주 9인제 배구대회 성료

화순고인돌·무진클럽 남녀부 우승

광주시 9인제 배구연맹 회장기 배구대회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 9인제 배구연맹(회장 박길재)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순수아마추어 54팀이 참가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면서 그간 쌓은 기량을 다졌다. 남녀 클럽부, 교직원부, 자모부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화순고인돌클럽과 무진클럽이 남녀클럽부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화순고인돌클럽은 이날 전남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광주그린비클럽을 2-0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우승컵을 안았다. 여자클럽부에선 무진클럽이 드림 9 클럽을 2-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서승원기자 swseo@

교직원부에선 진월초가 농성초를 2-1, 자모부에선 화정남초가 어룡초를 2-0으로 각각 물리치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배구 활성화와 동호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남자클럽부 24개팀, 여자클럽부 14개팀, 교직원부 10개팀 그리고 자모부 6개팀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정해곤(화순고인돌클럽·남자클럽부), 김화선(무진클럽·여자클럽부), 이용호(진월초·교직원부), 안미라(화정남초·자모부) 선수가 각 부문별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안았다. 우승팀에겐 100만원, 준우승 50만원 그리고 공동 3위팀에겐 각각 30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진다. /서승원기자 swseo@